

# 민요

차례

1. 검질메는 소리	7. 서우제 소리
2. 돌 모는 소리	8. 물질 하는 소리
3. 출 베는 소리	9. 마당질하는 소리
4. 밭 훑는 소리	10. 애기 재우는 소리
5. 사대소리	11. 시집살이 노래
6. ㄱ래 ㄱ는 소리	

남원2리의 민요는 노래로 바라보기보다는 소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계화 된 농업환경으로 인해 민요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고 한정되었으며, 같은 민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달랐다. 남원2리에서는 중산간 지역이라는 특성상 해안과 관련된 민요는 찾기 힘들었던 반면 농업과 관련된 민요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제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제보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에 임하였다. 제보자가 한동안 민요를 부르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골라서 짧게 불렀기 때문에 일부분만 채록한 민요가 대다수였다.

## 1. 검질메는 소리

검질짓고 오올러우 굴 너븐 밧디 이

고분우운 쉼로 여의명 가자  
 아~~앙 아~야아헤헤야앙에효오  
 앞명에랑 들어어 오라 뒤잇 명에라 나가라  
 아~~앙 아~야아헤헤야앙에효오  
 흔들 건들 놀고 너브자  
 아~~앙 아~야아헤헤야앙에효오  
 요놈의 것은 어떤 게냐 절~고동 어우렁 가자  
 아~~앙 아~~야아헤헤야앙에효오  
 즈서와서~ 놀고가면 아니되고 일을 해야 된다  
 아~~앙 아~~야아헤헤야앙에효오

<제보자: 현경식(남·70)>

## 2. 물 모는 소리

어~어덜덜덜덜덜덜 허~양 어으용 어으용  
 어느배 앞명에도 불라지고 뒷명에도 불라진다  
 어~ 어어 어러 덜덜덜덜덜덜

<제보자: 현경식(남·70)>

## 3. 출 베는 소리

어~으~으~흐~아아  
 산천~초목~ 오~ 젊아~~지고~~~~

열해~먹은~~~~~늘어~만 간다~  
해는 뜰낙 서산에 다 떨어~지고~~~  
요 내일은 어찌나 다~ 하까나  
에~~~혜~~에~~야아

<제보자: 현인호(남·71)>

#### 4. 발 밟는 소리

이르~이르~이르~으~이르~이러~이러~어어~어러러러러러러  
어러~어호~어러~어호~어러~  
요래~몽생이 덜아 발랑 덜랑 뽀아라~해는~지고 달은~저으 아으  
아~어라라~  
어으~어러러러어라라

<제보자: 현인호(남·71)>

#### 5. 사대소리

사대~~불렁~검질을 매자~아~~~~  
앞명에랑~들어나~보고 뒷명에~랑 나고 가라~  
검질~ 짓고~ 골 너븐 받에~ 고분췌로 여의명 가자

<제보자: 현인호(남·71)>

## 6. 7래 7는 소리

이여 흐민 나 눈물이 난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랜말 말하지마라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말앙가민 놈이나 웃나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모른질랑 모르멍 허멍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가건가랜 보내여 두영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나눈물로 나반반이여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올만허난 지드럼서라  
이영이여 이여도 허라

<제보자: 송설자(여·60)>

## 7. 서우제 소리

한라 영산 놀던 산신  
어양 어양 어양 어기 어양 어기로 상사나 뒤여  
아~~~~아양어 ~~~~~어양어허요  
아흔아홉골 골머리에 놀던 산신  
어양 어양 어양 어기 어양 어기로 상사나 뒤여

아~~~~아양어 ~~~~어양어허요  
태역장군 물장오리에서 놀던 산신  
어양 어양 어양 어기 어양 어기로 상사나 뒤여  
아~~~~아양어 ~~~~어양어허요  
서천국에 일흔오답 놀던산신  
어양 어양 어양 어기 어양 어기로 상사나 뒤여  
아~~~~아양어 ~~~~어양어허요  
강포수에 허포수에 어리목에서 놀던 산신  
어양 어양 어양 어기 어양 어기로 상사나 뒤여  
아~~~~아양어 ~~~~어양어허요

<제보자: 송설자(여·60)>

## 8. 물질 하는 소리

이어사나 이어사나  
우리어명 어느 바당에  
미역국 먹영 날라신고  
이어사나 이어사나

<제보자: 고순학(여·78)>

## 9. 마당질 하는 소리

어야~흥 어야~흥

누렁이 동산은 누구네 동산이나  
와작 착  
어야~홍 어야~홍  
누렁이 동산은 누구네 동산이나  
와작 착 와작 착

<제보자: 고순학(여·78)>

## 10. 애기 재우는 소리

### 1) 남자 애기를 재울 때

자랑자랑 똥이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잠을 깨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애기 잠을 깨라  
옥자동아 금자동아  
조선팔도 유랑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동네처녀 환장동아

### 2) 여자 애기를 재울 때

자랑자랑 똥이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잠을 깨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애기 잠을 깨라  
옥자동아 금자동아  
양귀비 같이 고운 손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동네총각 환장 동아

<제보자: 현달호 (남·73세)>

### 3) 애기 재우는 소리

윙이 자랑 윙이 자랑  
우리 애기 혼저 누윙 자불라  
너네아방 이제 물길어 와사 밥허고  
뭇 밥출려 내고해살꺼 아냐  
누윙자라이 누윙자라  
혼저 누윙자라 누윙 자사  
느네아방 이제 물길어당 밥행  
느네아방 쥐사될꺼아니냐이  
밥먹으랜 혼저 누윙 자불라이  
혼저 누윙 자불라

<제보자: 고순학(여·78)>

## 11. 시집살이 노래

요 시집이 살젠허난

고추장보다 더 맵더라  
모지리 같은 시누이에  
살젠허난 속상허고  
물구력 같은 소나이에  
살젠허난 속상허고  
경해도 살당보난 살아져라

<제보자: 고순학(여·78)>

■ 조사자 : 정현도(05), 진홍배(05), 김태은(06), 임이랑(09), 강주연(09)